

지역 소식통

부안로컬푸드직매장

농·축·수산물 특판행사

부안군은 부안로컬푸드직매장(덧밭할매)에서 추석을 맞아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농·축·수산물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판행사는 부안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과 추석선물세트 70여종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덧밭할매(www.덧밭할매.kr)에서는 지난 달 20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할인행사와 무료 택배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상원 농촌활력과장은 "인구 이동이 집중되는 명절맞이 특판행사를 통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판행사를 기획해 신선한 부안 먹거리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추석맞이

청소 종합대책 시행

정읍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13일까지 읍면동별 일제 청소와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해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마트 등 유통시설에서 판매되는 명절 선물세트의 분리배출표시 및 과대포장 단속도 실시해, 명절 기간 중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종량제 규격봉투,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다만 일요일인 15일과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시민들은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야 한다.

주민 불편 신고센터(☎63-539-8141~5)와 특별기동 청소반도 가동돼 쓰레기 수거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갯벌 세계유산센터, 모습 드러내

설계공모서 '오비비에이' 당선작 선정... 총사업비 170억 · 2026년 준공 목표

고창군은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을 위한 제안공모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설계(제안)공모는 7월29일부터 8월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다. 총 5곳에서 작품을 제출해 심사 결과 서울에 소재한 건축사무소 '오비비에이'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은 전시 공간에 대한 움직임이 돋보이고 전시 구성에 효과적이며, 건축물의 형태와 재료가 지역센터의 기능과 장소에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투시도

고창군 심원면 만물리에 조성되는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는 총 사업비 170억원에 지상 2층 규모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갯벌의 보전·모니터링 등의 관리 업무와 생태관광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 다양한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미숙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사전 전문가 간담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설계(제안)공모를 추진하여 건립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추석 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시민 건강 보호 총력

정읍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11일부터 25일까지를 비상응급 대응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팀 비상환반을 구성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공공보건기관 20개소를 비롯한 69개 의료기관과 43개 약국이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안내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정읍아르병원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방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공공상약국인 샘골약국도 오후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돼 의료약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다.

시민들은 시 보건소(☎539-6137~8), 보건복지콜센터(129),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m.or.kr), 119구급 상황관리센터 시청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비상진료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정보 또한 제공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이 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행안부장관 표창 · 특교세 3000만원 확보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6일 열린 제1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확보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인 박옥선 주무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추진했고 기부금을 재원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특색있는 기부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역소멸이란 위기 속에서 관계인구 활성화에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이 이번 경진대회에서 인정

받았다.

군은 이번 대회에서 야생별을 보호하는 ESG 기부사업과 고향사랑 민간추진협의회 구성, 고향사랑 3+1 프로젝트를 통한 관계인구 활성화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고향사랑 홍보캐릭터 발굴 등 많은 주목을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옥선 주무관은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전부터 답례품과 기부사업을 발굴하고 기부제 홍보를 추진하는 등 뚜렷한 실적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았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성과는 부안군민과 향우회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력 덕분에 얻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안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예산 절감 · 환경 보호 두 마리 토끼 잡다

정읍시, 순환골재 우수활용사례 공모 관련 국무총리표창 수상

정읍시가 환경부와 자원순환의날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제15회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 사례 공모'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관내 도로포장 공사에 순환골재와 재생아스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건설폐기물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환경 보호와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 사용 기준(40%)을 훨씬 넘어서는 순환골재 활용률을 달성해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순환골재와 재생아스콘의 사용 빈도를 높이고 특정 공사 현장 외에도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확대함으로써 시 예산 절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에 순환골재 활용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시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4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우수활용 사례 발표회'에 초청돼 자세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제7회 청년친화현정대상 '소통대상' 수상

고창군이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2024년 제7회 청년친화현정대상 호남권역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청년친화현정대상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등 탁월한 업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표창이다.

특히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친화현정위원회의 정량평가와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고창군은 2022년 청년정책을 전담하기 위한 청년창업팀을 신설하고, 청년이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목표로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고창군은 청년정책 참여가구인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신혼부부 주택대출이자 지원, 청년네트워크 동아리 지원 등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수상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추석 명절 식품 안전 특별 점검... 2건 적발

정읍시 보건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식품위생업소 115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해 투명성을 높였다.

점검은 추석 성수기 식품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84개소, 기타 식품판매업 27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개소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

용,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식품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 점검을 병행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점검 결과, 영업주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식품 취급 위반 등 2건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시 보건소는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업소를 철저히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